

3 서민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지다

한글 소설이 유행하다



◀ 초월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

조선 후기에는 《홍길동전》, 《춘향전》, 《별주부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의 한글 소설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한글 소설은 서민들과 여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양반집 여인들도 한글 소설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설을 읽어 주는 전문 이야기꾼도 있었어요. 이야기꾼은 생동감 있는 표정과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구경꾼들의 반응을 보면서 소설 속 이야기를 슬쩍 바꾸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춘향전》을 들으며 현실에서는 어려운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 열광했어요. 또 《홍길동전》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양반들도 좋아한 판소리

조선 후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판소리가 공연되었어요. 판소리는 소리꾼이 북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일씨구’ 등의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면서 판소리에 참여했어요.

판소리가 재미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반들도 판소리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체 높은 양반이 길바닥에 앉아서 꺾꺾 웃으며 판소리를 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소리꾼을 집으로 불러서 판소리를 즐겼지요.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도 판소리를 무척 좋아했어요. 오늘날에는 〈춘향가〉, 〈심청가〉, 〈홍부가〉, 〈적벽가〉, 〈수궁가〉 등의 판소리가 전해지고 있어요.



호기심 뽐뽐

조선 시대에는 판소리나 탈춤이 공연되는 극장 같은 곳이 있었나요?



판소리나 탈춤을 공연하기 위한 극장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공연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한켠에서 열리고 했어요. 주로 장터에서 공연이 열렸지요.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시가 많이 생겨 이런 공연도 자주 열렸답니다.

장터에서 탈춤이 공연되다

조선 후기 경상북도 안동의 장터에서 탈을 쓴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탈춤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앞에 자리 잡은 사람은 이른 아침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 사대부

양반을 일반 평민층에 비해 높여 이르는 말

◀ 새경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인데.

선비: 아니, 나는 팔대부의 자손인데.

양반: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아니, 양반이라는 게 팔대부도 몰라? 팔대부는 사대부의 두 배이지 뭐.

...

양반: 첫째, 지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었네.

선비: 뭐? 사서삼경? 나는 팔서육경도 읽었네.

양반: 팔서육경이 뭐가?

초랭이: 나도 아는 육경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팔만대장경, 장님의 안경, 머슴의 새경(일 년 급여)



-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 -

“하하하. 사대부의 ‘사’자를 숫자 4로 표현하면서 양반을 비꼬고 있어.”

“양반들은 걸만 번지르르하지 뭐. 아이고 통쾌해.”

조선 후기에는 신나는 춤사위와 양반을 비꼬는 내용, 서민들의 마음을 풀어 주는 내용으로 탈춤이 인기를 끌었어요. 황해도의 봉산 탈춤, 고성 오광대놀이, 서울 산대놀이 등의 탈춤이 있었어요.